

탄소중립 건물로 재탄생한 ‘아중도서관’

전주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통해 공사 완료… 9일 재개관

전주시 아중도서관이 탄소중립 건물로 재탄생해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아중도서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9일 시설을 재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건물 단열 성능 강화 △노후 창호 교체 △페일 회수 환기장치 설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도입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등이 다.

또한 시는 이용자가 많은 1층 로비와 3층 열람실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를 고려해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전주시 아중도서관이 탄소중립 건물로 재탄생해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행했다.

이를 통해 아중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중도서관은 재개관 이후 어린이특화도서관답게 임신부와 영아 가정을 위한 ‘다독다독 책육아 도서관 서비스’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견학·그림책놀이·어린이문학 작가와의 만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과 11월에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성인과 청년층을 위한 예술 인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아중도서관이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등 시 전주를 대표하는 친환경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자와 중점관리대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통장 교육을 8월 월례회의 때 진행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율 ↑

전주시 혁신동, 적극 홍보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상승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비대면 참여율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혁신동 13,082세대 중 약 55%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혁신동 주민센터는 조사 과정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최대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별 안내 쪽지 자체 제작 및 배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 홍보 및 참여 독려 △경로당 방문하여 정부24 앱 설치 및 사용법 안내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홍보를 집중 추진해 왔다. 특히 전주혁신 우미린1차아파트, 대방디엘시티 아파트의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율은 각각 72%로 혁신동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자 혁신동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동 주민센터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자와 중점관리대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통장님 방문조사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통장 교육을 8월 월례회의 때 진행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역 기업들, 응원 배너·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나서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 개막을 앞두고 지역기업들이 뜨거운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역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전주 제1산업단지 내 대표 제조기업인 휴비스 전주공장과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기업인 (주)하이슬은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응원 가로배너와 현수막을 제작해 전주 곳곳을 축제 분위기로 물들이고 있다.

특히 응원 배너와 현수막 등은 대회 기간 전주시내 주요 도로와 경기장 주변에 설치돼 전주를 방문하는 세계 각국 드론축구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환영 메시지를 전하며 대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전주 섬유제품 제조기업인 한 실어패럴의 경우 드론축구월드컵 응원 티셔츠 제작을 맡아 셔포터즈와 자원봉사자가 대회 현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사 특유의 디자인과 제작 노하우가 담긴 응원 티셔츠는 경기장 안팎에서 대회의 응원 열기를 한층 높이고,



드론축구 중추도시의 위상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업들의 이러한 응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드론축구월드컵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역기업들의 협력을 토대로 전주가 드론스포츠 수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며 참여하는 활기찬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역 대표 기업들이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힘을 보태 주어 대회의 의미가 더욱 빛나게 됐다”면서 “산업과 문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이번 대회가 세계에 전주의 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135명 검정고시 합격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135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진학 등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됐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지난 달 12일 전주지정중학교에서 치러진 ‘2025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서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 13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140명의 응시인원 중 135명(초 2명, 중 15명, 고 118명)이 합격한 것으로 96.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앞서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들은 지난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검정고시에 서도 98.7%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 중 총 8명이 만점을 받아, 올해 총 15명의 만점자를 배출하게 됐다. 이에 앞서 전주시 꿈드림은 지난 2월부터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협력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검정고

시 대비 개인·소그룹 멘토링과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육협력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도내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주소지를 전주로 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꿈멘토단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및 정서 멘토로서 기초 학습 능력 향상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 꿈드림은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중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해 1:1 진로진학 컨설팅과 대학 입시 설명회(8월 28일~8월 29일, 9월 2일)도 진행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검정고시 시험이 다가올 때면 긴장하는 아이들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매 시험마다 만점자가 배출되는 것을 보면 자랑스럽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금희 전주시 인구정책과장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서 접수

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총 1106필지(완산구=579필지, 덕진구=527필지)의 토지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위해 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의견제출 사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후 전

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부안군

안전한 지구를 위해 꼭!! 기부하세요!

부안고향사랑기부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금융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포함)

문의 063-580-4938



홈페이지 바로가기